

# 지자체 방치에... 어민들 굴껍질 그냥 버리기 일쑤

### '벌금폭탄' 어촌마을 폐각 처리실태 들여다보니

#### 처리비용 주민부담 20% 불구 올해 여수만 신청 제도 활용 미미... 지난해 전남지역 6477t 쌓아둬

완도 어촌 주민들이 무심코 버린 굴껍질 때문에 수천만원대 벌금을 물게 된 딱한 사정(광주일보 7일자 7면 보도)이 알려지자 전남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폐각 처리 비용 예산을 신청한 곳은 22개 시·군 중 여수시(1억2000만원)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폐각 처리 비용 중 어민이 20%를 부담하면 일선 시·군에서 60%, 국가가 20%를 지원해 준다. 하지만 대량 양식이 아닌, 소규모 생계형 양식업자들의 경우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민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또 여수, 해남, 고흥 등 전남 지역 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폐각처리공장에서 일선 시·군을 돌려 폐각

을 수거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어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폐각처리공장이 폐각을 전량 수거하는 지역의 고흥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어 지난해 예산 5000만원을 전혀 쓰지 않고 반납하기도 했다. 그나마 이 공장들은 폐각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 우선 수거하고, 소량 배출되는 지역은 찾지 않아 폐각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해

언제라도 '폐각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도 지역 굴 양식어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폐각은 3만9624t으로, 수거료 비료를 재활용된 2만4180t, 굴 양식에 사용된 7484t, 매립된 1482t 외에 그대로 쌓여있는 폐각이 6477t에 이르는 만큼 적극적 재활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광목기자 kroh@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3분 해질 18시 34분 달뜨기 04시 04분 달짐 14시 55분

**따뜻한 봄**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크니 건강관리 유의하세요

광주	맑음	4/19°C
목포	맑음	4/18°C
여수	맑음	7/17°C
나주	맑음	2/20°C
완도	맑음	4/18°C
구례	맑음	2/19°C
강진	맑음	1/18°C
해남	맑음	1/19°C
장흥	맑음	1/19°C
순천	맑음	2/18°C
영광	맑음	2/16°C
진도	맑음	2/18°C
전주	맑음	5/18°C
군산	맑음	3/15°C
남원	맑음	1/18°C
홍산도	맑음	5/17°C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토)	10(일)	11(월)	21(화)	13(수)	14(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6/23	4/14	2/16	4/18	7/10	4/10

광주 운암동 입점저지 대책위, 정보공개 청구 사연

## 대형마트 재건축 허가 누가 찬성했나 알고싶다

### 북구 심의위, 비공개 결정

광주 운암시장 상인·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운암동 판매시설 입점저지대책위원회'가 최근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최근 대형 마트 재건축 허가를 내준 북구 건축심의위원회의 당시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것으로, 건축심의회는 지난해 4월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대형 마트(연면적 2만8026㎡) 재건축 심의 신청을 받고 지난 1월 22일 조건부 심의를 했다. 이미 결과가 나온 마당에 대책위원회가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이유는 뭘까. 우선, 입점 저지대책위는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입장이다. 심의과정에서 어느 위원들이 찬성 발언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향후

지지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비판이나 동의를 구하겠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북구 건축심의회는 그러나 7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 22명 중 16명이 찬성, 12명의 위원이 공개를 반대한 것이다. 심의 내용이 공개되면 위원·심의 신청자·입점저지대책위 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위원들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비공개 결정은 북구 건축심의회 스스로 부실 심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수·건축사·구의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북구 건축심의회는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계획·구조·설비·방재·경관·도시계획 등을 심의하는 곳이다. /이종희기자 glee@kwangju.co.kr



RDF설치 반대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위치한 광역위생매립장 인근 주민 50여명이 7일 오후 대촌 농협 대강당에서 'RDF(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설치반대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대 취업률 높이기 조직개편 단행

### 지병문 총장 취임 석달 감담회

지병문 전남대 총장이 취임을 제고 위한 조직개편과 취업률 제고 방안을 밝혔다. 지 총장은 7일 취임 3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임기 계획 등을 심의하는 곳이다. 지 총장은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그는 "우리 대학 취업률은 지난해 48%에 그쳤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신설된 취업전담 기구인 융합인재교육원과 연계해 단과대학별 취업 전담인력을 배치, 취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꾀고, 올해 신입생부터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영어실력 진단시험을 시행해 3학년 이상에 올라가기 전 최소한 600점 이상의 토익점수를 획득하도록 했다. 여수캠퍼스와 광주 동부캠퍼스에 돌 예정인 부총장 임명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방식과 부총장 신설시의 장단점을 고려해 공모방식 등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 유정복 내정자 "해상사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 선박 충돌 관련 목포 방문

진도 해상에서 LPG선과 충돌한 어선 선원 7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7일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사태를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이날 진도 알바다 어선 침몰사고 수습현장인 목포항을 찾아 사고경위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남쪽 22km 해상에서 신안선적 9.77t 닻자

망 어선 대광호가 한국선적 2967t LPG 운반선 오션어스호에 맞혀 세동강 나면서 어선 선원 7명이 실종됐다. 유 내정자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실종자 수색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게 국민의 열렬한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사고를 수습하고 실종자 수색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유 내정자에게 전화해 선원 실종사고가 난 현장에 직접 가서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목포=고규석기자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총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가격쿠폰이벤트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이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할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안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능이 움츠러들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쬐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아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행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런 검사도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뻐뻐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드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직접,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드라한의원 광주점 062-368-5075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피소스 맞은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총-9818호 (광주)